

BNK금융, ‘빈대인 체제’ 지속… ‘해양수도 부울경’ 전략 눈길

빈대인 회장 ‘3년 연임’ 성공

임추위, 차기회장 후보 단독추천
안정 경영능력·지역 네트워크 등
‘BNK 성장’ 빈 회장의 연임 배경
2029년 3월까지 회장직 이어가

BNK금융이 지역 중심 경영과 AI·디지털 전환에 방점을 둔 ‘빈대인 체제’를 지속한다. 오는 2026년 3월 첫 임기를 마치는 빈대인 회장이 3년의 연임에 성공해서다. 빈 회장의 연임으로 ‘동남권 해양수도권 조성’과 ‘생산적 금융 대전환’ 등 정부의 정책목표에 발맞춘 BNK금융의 ‘지역형 생산적 금융’ 전략이 지속되는 한편, 디지털·AI 대전환(AI) 목표도 속도를 낼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8일 4명의 2차 후보군에 대한 심층 면접을 진행하고, 위원 표결을 통해 빈대인 현 BNK금융그룹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 BNK금융그룹 임추위는 빈대인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BNK금융

독 추천했다. BNK금융지주는 내년 3월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회장을 확정할 예정으로, 빈 회장은 오는 2029년 3월까지 회장직을 이어가게 된다.

빈대인 회장의 연임 배경은 지난 임기 동안 BNK금융의 성장을 이끈 안정적인 경영 능력과 함께 방대한 지역적 네트워크가 꼽힌다. BNK금융이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으로 촉발된

‘동남권 해양수도권 조성’ 정책 목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어서다.

앞서 BNK금융은 지난 10월 ‘생산적 금융협의회’를 출범해 내년에 총 21조원 규모의 투자액을 조선·해양·해상플랜트 등 동남권 지역의 핵심 산업과 지역 한계기업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주요 금융지주가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목표에 맞춰 연간 투자

액으로 제시한 것과 맞먹는 규모로, 동남권 지역에 한정한다면 금융권 전체를 통틀어 최대 규모다.

생산적금융협의회 출범 당시 빈 회장은 BNK금융의 전략 목표로 ‘BNK부울경 지역형 생산적 금융’을 제시했으며 ▲국민성장펀드 및 동남투자공사 연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지원 및 해양특화산업 육성 ▲부울경 지역 집중투자 산업 선정 등 세부 추진 목표도 공개했다.

BNK금융이 올 하반기부터 적극 추진 중인 AI(인공지능)·디지털 전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BNK금융은 지난 7월 하반기 조직개편 당시 ‘그룹고객가치혁신부문’을 ‘그룹AI미래가치부문’으로 재편하고 산하에 디지털기획부와 AI사업부를 통합한 ‘AI디지털전략부’를 설치했다. 그룹차원의 인공지능전환(AI)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탐색한다는 목표에서다.

이어 이달 8일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디지털 전략연구조직’을 출범했다. 연구조직은 금융권의 차세대 먹거

리로 평가받는 AI와 가상자산에 관련한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할 예정이다.

빈 회장의 연임으로 BNK금융의 지역 메세나 활동(기업의 문화 활동 후원)도 지속 및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BNK금융은 지난 2024년부터 지역 예술인·문화단체를 후원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경험을 제공하고자 문화공연 프로그램 ‘플레이 온 부산(Play on Busan)’을 매달 개최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의 지역 연고지 프로젝트인 BNKFEARX(피어엑스)를 네이밍 스폰서로 후원하고 있다.

BNK금융 임추위 관계자는 “이번 경영승계는 지역에서 BNK가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을 이해하고 회장으로서의 비전과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그룹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최적의 적임자를 찾아내는 과정이었다”라며 “(빈대인 회장의) 해수부 이전을 계기로 해양 수도로 격상될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생산적 금융 등 정부 정책 대응 역량이 주요한 인선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대구·경북·강원 중심 저축銀 거래자 수 ‘뚝’ 10억 ‘로또청약’ 역삼센트럴자이 청약

3분기 3곳 거래자수 전년비 5.2% ↓
CK저축은행 4373명 ↓하락폭 최대

저축은행의 양극화가 심화된 가운데 지난 3분기 대구·경북·강원 지역의 거래자 감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 권역보다 감소율이 5배에 달했다.

9일 79개 저축은행 경영공시 자료에 따르면 3분기 대구·경북·강원 저축은행의 총거래자 수는 11만705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6412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CK저축은행의 거래자 수가 같은 기간 4373명 줄어 들면서 가장 크게 하락했다. 이어 드림저축은행(-742명), 머스트살일저축은행(-472명), 참저축은행(-403명) 순으로 거래자 수가 감소했다.

1년 주기로 봤을 때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감소세다. 타 지역별 거래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호남의 총거래자 수는 19만1200명으로 같은 기간 4.31% 감소

했다. 이어 부산·경남 저축은행은 약 3% 줄어든 49만4804명, 충청은 1.16% 감소한 39만 219명을 기록했다.

수도권의 경우는 경기·인천이 109만 619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68% 감소했다. 서울은 총 751만7751명으로 같은 기간 약 0.13% 감소하는 데 그쳤다.

지방 저축은행 관계자는 “입출 고객 자체가 많이 줄어서 거래자 수도 같이 줄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면서 “여신 고객 감소에 따라 수신 고객이 줄어들고 거래자 수도 같이 줄어드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여신 비중이 줄자 거래자 수 감소폭이 커지며 지방 저축은행이 수도권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수도권은 거래자 규모가 워낙 컸던 만큼 여신 축소에도 거래자 수 감소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방 저축은행은 비용 절감을 통해 당장의 수익성을 방어하는 모습이다. 대표

적으로 CK저축은행은 올해 3분기 수익이 58억원으로 전년 동기(76억원) 대비 약 18억원 감소했지만, 비용을 70억원에서 41억원으로 크게 줄였다. 3분기 순이익은 17억원으로 전년 동기(6억원)보다 약 3배 증가한 수준을 기록했다.

머스트살일저축은행 역시 올해 3분기 수익이 5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3억원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비용을 58억원에서 49억원으로 줄이며 순이익을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했다.

저축은행권은 지방과 서울을 중심으로 양극화가 가파르게 진행 중이다. 실제 자산규모 기준으로 상위 10개사 3분기 누적 순이익은 2860억원으로 전체 79개 저축은행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의 중 약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을 제외하고 SBI저축은행, 오케이저축은행, 웹플러스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디비저축은행 등 상위 10개사의 저축은행은 모두 서울 권역에 쏠려 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15일 특공 시작으로 청약 진행
지상 17층, 4개 동, 총 237가구

올해 마지막 ‘로또청약’ 물량이 강남에서 나온다. ‘국민평형’의 분양가가 30억원을 밑돌면서 10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기대되고 있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센트럴자이가 오는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을 진행한다.

역삼센트럴자이는 역삼동 일원 역삼동(758·은하수·760)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선다. 지하 3층~지상 17층, 4개 동, 총 237가구 규모다. 전체 규모가 크지 않다보니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59~122㎡ 87가구에 그친다. 전용면적별로는 ▲59㎡ 10가구 ▲84㎡ A 42가구 ▲84㎡B 13가구 ▲84㎡C 11가구 ▲84㎡D 5가구 ▲122㎡ 6가구 등이다.

역삼센트럴자이는 지하철 수인분당선 한티역과 2호선·수인분당선 환승역인 선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교육환경은 반경 550m 내에 도곡초교, 반경 1km 내에는 역삼중, 도곡중, 단국대 사대부중·고, 진선여중·고 등이 위치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센트럴자이 조감도. /GS건설

있다. 대치동 학원가 역시 도보권이다. 이마트역삼점, 롯데백화점 강남점, 롯데시네마 도곡점 등 쇼핑·문화시설도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분양가는 전용면적별 최고가 기준 59㎡ 20억 1200만원, 84㎡ 28억 1300만원, 122㎡ 37억 9800만원이다.

인접한 ‘개나리래미안’의 경우 2006년에 입주한 구축임에도 전용 84㎡가 지난달 35억원에 거래됐고, 신축 가운데서는 2022년에 입주한 ‘강남센트럴아이파크’의 전용 59㎡가 지난달 32억원에 실거래를 신고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GS건설, ‘AI 레시피’ 경진대회 개최

우수사례 4건 선발, 공유하기로

GS건설은 AI 활용 역량을 전사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AI 레시피’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월 국내 건설사 최초로 오픈AI의 기업용 AI 솔루션 ‘챗(Chat)GPT 엔터프라이즈(Enterprise)’ 도입 후 사내에 처음으로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다.

이번 경진대회는 AI를 활용해 실제 업무 효율성 강화로 이어지는 사례를 내부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실제 현업에서 총 50여개의 AI 활

용 사례가 접수됐고, 그 중 각 부서별 팀장들이 활용도, 혁신성, 확장성 등을 평가해 최종 4건의 우수사례를 선발했다.

AI 레시피 대회에서는 현장에서 문서 파일명을 정리하기 쉽게 자동으로 변환해주는 기능 등 AI를 활용해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고, 데이터 분석을 효율적으로 하는 아이디어들이 직원들의 큰 반응을 얻었다.

GS건설은 이번 경진대회를 시작으로 AI를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축적된 우수사례를 기



허윤홍 GS건설 대표(오른쪽)가 ‘AI 레시피’ 경진대회 수상자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GS건설

반으로 AI활용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직원들이 더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AI 활용은 단순한 기술 채택이 아닌 업무혁신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신한은행, 국제무역금융 심사에 AI 적용

‘수출환어음 매입 AI 심사 서비스’ 출시

신한은행은 9일 국내 금융권 최초로 OpenAI의 GPT 모델을 적용한 ‘수출환어음 매입 AI 심사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번 서비스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난 4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 11월 금융보안원의 보안평가를 완료한 후 도입되는 것으로, 국제무역금융 심사 업무에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을 본격

적용하는 국내 첫 사례다.

그동안 수출기업은 거래 은행에 서류를 제출한 후 국제표준(UCP·ISBP)에 따른 정밀심사를 거쳐 자금을 지급받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됐다. 이번 AI 심사 도입으로 서류 검토 과정이 자동화되면서 심사 시간이 단축되고 수출기업의 주요 부담 요인 중 하나였던 하자 리스크도 함께 줄어들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